

전남도-민주당 전남도당, 국비 확보 상호 협력

28일 당정협의회...남해안신관광벨트 등 64건 논의

전라남도는 지난 28일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국가 지원 등 2020년 국고 확보를 위한 지역 핵심 현안 64건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벌였다.

당정협의회에서 전라남도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당위

성과 논리를 강하게 피력하고, 각 시·군을 대표하는 지역위원장들은 지역 주민을 위한 시군 현안을 설명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뛰자고 결의했다.

논의된 주요 현안은 ▲한전공대 글로벌 에너지 특화대학 육성 지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국가차원 지원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자체 자율기획형 R&D 지원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압해~화원, 화태~백야 국도77호선 개설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등이다. (정재기획관 286-2120) /이민행 대표기자

이용재 의장, 5·18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15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국립5·18민주묘지 결의대회 개최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은 15일 국립 5.18묘지에서 개최된 '광주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조치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주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모여 참배에 이어 규탄대회를 갖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동에 강력히 비판하며 사죄를 요구했다.

이용재 의장은 "세계사에도 유

례가 없는 거룩한 민중항쟁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폄훼해 승고한 희생정신을 훼손시켰다"면서, "헌법정신을 모독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즉각적 제명 조치하라"고 밝혔다.

특히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부강 국가를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치권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소속한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김문수 도의원, '신안해저유물 전시시설 건립' 촉구

전시시설 건립 통해 신안해저유물 제 자리 찾아야

전남도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신안해저유물 전시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문수 의원(민주당/신안 1)이 대표 발의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1월, 신안해저유물 일부를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관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며, "유물이 인양된 신안군에 신안해저유물을 전시·보관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신안해저유물은 1975년 신안군 중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의 그물에 수 점의 도자기가 걸려 올라온 것을 계기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과 전라남도 등이 1984

년까지 수중발굴조사를 통해 인양한 2만7천여 점에 달하는 유물과 선체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또한, 약 700년 전 미완의 항해로 침몰한 '신안선'과 함께 인양된 해저유물 중 90%를 차지하는 2만 5천여 점의 도자기는 중국 송·원대 동아시아 대외교역의 실체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컬렉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선체인 '신안선'은 목포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전시 중이고, 유물의 대다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 분산되어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해 경기

와 충청 해역에서 인양한 해저유물의 전시·보관을 위해 충남 태안에 '국립서해수중유물보관동'을 완공했다.

또, 지난해 제주와 신안군 흑산도 해역에서 550여 점의 도자기를 인양했고, 수중발굴조사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전남도의회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흩어져 있는 신안해저유물과 최근 인양된 유물까지를 한 곳에 전시·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신안군에 건립해 달라며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의원은 "문화기반이 열약한 신안군에 신안해저유물 전시시설이 건립된다면 조만간 정식 개통하는 전사대교와 함께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물을 이관 받은 국립광주박물관도 전시시설 부족으로 신안해저유물의 전시·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신안해저유물 전시시설 건립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이민행 대표기자

전남도, 권역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모

3월 8일까지 희망 시군 접수...2022년까지 4개소 조성

전라남도는 "권역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희망 시·군을 3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권역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1년 이내 기간 동안 시설에 거주하면서 농업 창업에 대한 실습·교육 등을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부담,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다.

주요 시설은 숙소(기숙형·단독형), 교육관, 실습하우스, 농기계 보관소, 텃밭 등이다. 2022년까지 매년 1개소씩, 4년간 총사업비 120억 원(도비 60억/시·군비

60억)을 들여 동부, 북부, 서남부, 중남부 등 권역별로 총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및 전문가 참여하는 발표심사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연호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류형센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귀농·귀촌인들이 사전에 지역을 더 연구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교육 등을 연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나광국 도의원, '전라남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발의

전라남도 발주 건설공사 전 과정 투명한 정보 공개

했다.

이 조례안 통과로 10억원 이상의 전라남도 발주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대해 발주계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지급에

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나광국 의원은 "공공건설공사는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이 조례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행정운영과 도민의 알권리 제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류준범 기자

김기성 도의원, '성인용 보행기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거동불편 어르신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전남도의회 김기성 의원(민주당/담양)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피부에 와 닿는 노인복지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도내 저소득층과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매년 보행기 지원 사업계획 등은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는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여 수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원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수

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까지 수혜대상자 기준을 확대했다.

또, 도로여건, 사용자 체중 등에 따라 보행기 교체시기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했다.

김기성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노인 보행기 수혜대상자가 확대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을 실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조례안은 1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처,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이민행 대표기자

전남, 수산물 생산량 전국의 56%

2018년 한 해 184만 2천 생산 2조 9천억 원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이 전국의 56%를 점유, 전남이 제1의 수산도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통계청 수산물 생산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이 전년보다 8천톤 줄어든 184만 2천톤을 기록했다.

전국 생산량은 329만 8천톤이다. 이에 따른 생산액은 2조 8천67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천 627억 원이 늘었다.

다만 전국 생산액(7조 4천 781

억 원)과 비교하면 38% 수준이다.

어업별 생산액은 해면양식어업이 전년보다 306억 원(2%) 늘어난 1조 7천320억 원, 어선어업이 1천236억 원(15%) 늘어난 9천440억 원, 내수면어업이 85억 원(5%) 늘어난 1천910억 원이다.

주요 품종별 생산액은 전복(6천3억 원, 킴 4천776억 원, 넙치류 1천934억 원, 뽕장어 1천780억 원, 미역 1천269억 원, 참조기 1천192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민행 대표기자

신안군 조합장 후보															
남부지역	기호 1번 김경철 (金敬哲 58세) 대불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전)도초농협근무(27년 6월) (현)도초농협조합장(13대)	기호 2번 박성재 (朴聖在 58세) 대불대 관광경영학과 졸업 (전)도초농협 이사 (전)도초농협 조합장	기호 1번 최승영 (崔承永 65세) 목포과학대 관광경영학과 졸업 (현)비금융협동조합장 (전)비금융연장	기호 2번 권오연 (權五連 53세)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재학중 (전)신안군의회 제6·7대 의원 (전)비금융협 이사	기호 3번 김형석 (金亨碩 69세) 미기재 (전)비금융협 9대·11대 조합장	신안지역	기호 1번 권성남 (權成南 63세) 목포과학대 토목과 졸업 전신안군의회 제2·3·4대 의원 (전)신안군의회 부의장	기호 2번 정인균 (鄭仁均 60세) 인좌중학교 졸업 (전)신안농협조합장사무대행 (전)인좌면 대리 영농회장 (11년)	기호 3번 이동치 (李東致 52세) 동신전문대학 경영과 졸업 (전)신안농협 판매팀장	안남지역	기호 1번 한인호 (韓仁鎬 64세) 목포과학대 사회복지과 졸업 (현)안해농협 조합장 (전)안해농협 상무 (전)안해농협 상무	기호 2번 천성태 (千星泰 58세) 순천농업전문대 농업과 졸업 (전)안해농협 상무 (전)사면법인 신안라이온스 회장			
동부지역	기호 1번 김정원 (金正元 50세) 목포대학교 대학원 졸업(농학 전공) (전)임자농협 이사	기호 2번 변재남 (卞在男 58세) 목포중일고등학교 졸업 (전)임자농협 이사	기호 3번 김대현 (金大鉉 58세) 원광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전)임자농협직원 (현)임자농협조합장	북신안지역	기호 1번 양영모 (梁榮模 65세) 목포과학대 토목학과 졸업 (전)신안군의회 의장(6대 후반기·7대 전반기) (현)신안군44본부장	기호 2번 최영철 (崔永喆 55세)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수료 (전)북신안농협 이사 (현)농촌진흥청부회장	남신안지역	기호 1번 정승관 (鄭承官 60세)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졸업 (현)남신안농협 조합장	기호 2번 김병남 (金炳南 61세) 목포상업고등학교 졸업 (전)남신안농협 전무	신안수협	기호 1번 김길동 (金吉童 64세)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전)신안군수협협동조합 이사 8년 (현)한국김생산자연합회 신안군지회장	기호 2번 주영문 (朱英文 65세)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현)신안군수협 조합장 상무위원 (전)전남도의회 제8·9·10대 신안군지회장	신안군산림조합	기호 1번 임흥민 (任興彬 58세) 초당대 신안대학원 행정학사 (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무위원 (전)전남도의회 제8·9·10대 의원	기호 2번 박일용 (朴一鎔 64세) 목포대 대학원 경영학사 (전)도목직 공무원 (신안·곡천·목포·안영) (현)신안군산림조합장